

# “전주시 최고정책은 효성 탄소섬유공장 착공”

시민 설문 1위... “산업 전방위 활용... 경쟁력 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인증·도시가스 보급順



지난 3월 열린 전주시 첨단복합단지내 효성 탄소섬유 공장 착공식. 효성은 내년 2월말부터 탄소섬유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전북일보 제공)

전주시민들은 ‘(주)효성 탄소섬유 공장 착공’을 올해 전주시가 추진한 최고의 정책으로 손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한 해 동안 추진한 50가지의 정책 중 총 1238명이 참여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 최고 정책 1위는 ‘(주)효성 탄소섬유공장 착공(505표)’이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주시가 ‘2012 전주시 베스트(Best) 10대 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0일까지 7일간 시민 설문조사와 출입기자 및 인터넷 투표 등 3가지 방법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효성 탄소섬유 공장 착공 및 생산1라인공장 시험가동’이 505표를 얻어 1위로 뽑혔다.

2위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인증(438표)’, 3위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100% 보급(437표)’, 4위는 ‘무상급식 및 친환경급식 지원(427표)’, 5위는 ‘국립무형유산원 앞 특색거리 조성(365표)’ 순으로 나타났다.

효성은 지난 2월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부지 28만4000㎡ 중 18만㎡ 규모 공장을 착공했다. 효성은 먼저 탄소섬유 생산공장의 1라인(7만㎡)을 착공한 후 이어 9월부터 내부 설비 및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시제품 생산은 내년 2월말로 예정돼 있다. 전주시는 효성 측이 탄소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한지 하루만에 허가증을 발급했다. 대규모 공장 건축 신청이 하루만에 허가 처리된 것은 전주시 건축 민원처리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효성은 내년께 중성급(T-700) 탄소섬유가 양산되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성급 탄소섬유는 주로 항공기, 스포츠용품, 자동차 부품 소재로 쓰인다. 효성은 전주 기계탄소기술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양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효성은 전주 탄소섬유 공장에 오는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에 투자해 연간 1만7000t의 탄소섬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복지급여 지원 ▲한옥마을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등 생태체험공간 조성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 7개 영역 추진 ▲시민의 일상에서 함께하는 중남문·농촌·서해광장 조성 ▲전북 혁신도시, 만성·효천지구 개발이 선점됐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22만명 관람

### 32건 문화행사 호평

지난해 10월 개관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하 근대박물관)이 지역 특화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2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상설전시를 제외한 기획전 및 문화행사가 총 32회 치러졌다.

이 가운데 기획전과 특별전 등 크고 작은 전시는 16회로 분기에 1회 개최된 기획전이 4회, 지역 역사와 문화

를 차별화해 소개한 특별전은 12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했다.

특히 기획전은 기존 유물전, 동국사 복장유물전, 근대서화 100년전, 세계 도자기 크리스탈전 등 매분기마다 참신한 소재의 테마로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근대박물관은 아울러 ‘박물관을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라는 목표를 세우고 박물관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음악회 7회와 명절 민속놀이, 일반 문화행사 6회 등은 박물관이 위치한 원도심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이성당이 후원한 클나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영광교과 선교합창단, 새만금 삼성공연단도 눈길을 끌었다고. 특히 군산의 근대문화자원을 주제로 한 근대연극 ‘1930년 시간여행’ 상설공연은 박물관 공간과 인적 네트워크(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한 특화 사업으로, 박물관 운영의 선진사례로 높이 평가됐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 부안군 공무원 승진 서열 조작 의혹

### 군의회 “명부 분실경위 의심”...군 “임의 수정 불가”

부안군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안군의회 장공현 의원은 지난 21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의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경 500페이지 분량의 군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된 뒤 제작성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임 A군수 권한대행이 지난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 정가 평정하고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가 현 김호수 군수 취임 후 단 한차례도 평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5월에 분실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분실됐다기보다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분실 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분실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신금재 자치행정과장은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스템에 연도별로 작성돼 기준일별로 저장돼 있다”며 “한번 작성된 명부는 재작성할 수 없으며, 각종 감사 기본자료를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는 문서”라고 답변했다. 한편 승진 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군 공무원 800명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에 평정한 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준 영구보존되는 대외비 문서이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 순창 저염 간장 인기 폭발

### 12월 첫 출시 1억4천 매출

순창군이 개발한 저염(低鹽) 기능성 간장이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재)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 삼삼장류 프로젝트와 지식경제부 광역 선도사업의 연구 결과물로 (농)순창장류(주)에서 만든 전통간장인 ‘순창간장’이 이달 초 백화점에 첫 출시돼 1억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정도연 센터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과 토종 발효미생물을 이용한 ‘순창간장’이 충분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콩과 토종 미생물을 활용한다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장류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정읍 인상고 야구부 창단

정읍 인상고등학교는 지난 21일 김완주 전북지사, 김생기 정읍시장, 대한야구협회 윤정원 전무이사,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부 창단식을 열었다.

감독은 주니어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진재영씨가 맡았고, 1학년 10명 등 17명이 선수로 활동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

## 단신

### 군산 시립도서관 초등생 독서교실 운영

군산 시립도서관(관장 신재현)은 겨울방학을 맞아 2013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관내 초등학교 4·5학년 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책의 역사, 나의 역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독서교실은 ▲도서관 이용교육 ▲아이러브 북토크 ▲나만의 북마크 만들기 ▲

옛날 책으로 만나보는 나의 일생 등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다.

참가신청은 20일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gunsan.go.kr)에서 선착순으로 받으며, 참가비용은 무료다. 문의(063-450-4456)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 정읍시, 한우·복분자·버섯·산나물 요리 개발

정읍시가 (사)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에 의뢰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이용한 특색있고 차별화된 4종의 요리를 개발, 요리법 보급에 나섰다.

단풍미인 한우와 복분자, 버섯, 산나물을 원료로 개발된 음식은 ▲단풍미인 매운갈비찜 ▲복분

자 불고기 ▲영양버섯 해물 가마솥밥 ▲산채전이다.

시는 이들 음식을 대표 관광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13년 모범음식점’ 70개소를 대상으로 개발요리를 메뉴로 채택할 업소신청을 받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

### 김제 성덕면 주민자치위 김치·쌀로 이웃돕기

김제시 성덕면과 황산면 주민들이 소외된 이웃사랑을 실천해 훈훈하게 하고 있다.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임용혁)는 최근 관내 독거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40세대에 김장김치 40통(480ℓ)과 ‘지평선 쌀’ 20kg 20포

대를 전달했다.

황산면 새마을 부녀회(회장 이보연)도 밀가루와 김 등 3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해 관내 25개 경로당을 전달했다. 백일청년회(대표 최기만)는 라면 5박스를 어려운 이웃들에 써주라며 기탁했다. /김제=강철수기자 knews@

### 순창 팔덕 보건지소 본격 운영

순창군 팔덕 보건지소가 지난 21일 준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팔덕 보건지소는 국비 3억9100만원 등 총 5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324㎡(98평) 지상 2층 규모로 진료실과 건강증진실, 통합보건실, 대기실, 의사숙

소 등의 시설을 갖췄다.

한편 순창군은 1999년부터 올해까지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총 10개 보건지소 중 팔덕 보건지소를 포함한 9개소를 완공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고창군, 쓰레기 줄이기 ‘우수기관’

고창군이 전북도에서 시행한 ‘2012년 자원순환 이행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됐다.

군은 청소행정 관련 예산 57억 7700만원을 확보한 후 조기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비롯해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의약품 336kg을 수거하고, 종량제 봉투 이용과 철저한 분리배출

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을 극대화했다.

특히 자원재활용 실천을 위해 관내 초·중학교 35개소와 공동주택 38개소를 대상으로 폐품집중수거 운동을 펼쳐 폐전지 900kg과 폐휴대폰 400여 개를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hello tv

다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다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불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SAVE 최대 56%**  
**HELLOSET**  
다지털 방송은 헬로tv로

1588-3450

## 펠릿 불꽃난로 온풍기

기존 난방비용대비 70%절감효율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연료비도 절감하는 펠릿불꽃난로 온풍기!!!  
**연료비가 걱정은 이제 그만**

주택 사무실 영업장 공장 등 실내 어느 곳이나 설치 가능하며 뛰어난 난방효과와 함께 고상하고 우아한 실내분위기 연출효과!!!

A형	불꽃난로 제품규격	B형
단독형(스토브식)난로	형식 220V, 60Hz	단독형(스토브식)난로
외형치수	500 x 530 x 870	외형치수
계통중량	약 65kg	계통중량
일 8시간 기준 약 10kg	연료소모량	일 8시간 기준 약 12kg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8kg	최소연료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9kg
최대 20kg	연료저장량	최대 30kg
60W	정격소비전력	70W
약183㎡(구약20~30평형)	사용면적	약149㎡(구약40~50평형)

**연료절감 비용으로 장기할부 가능**

제품명	사용연료	일 8시간기준 사용량	금액환산
펠릿난로	우드펠릿	약 10kg	3,500원
석유온풍기	석유	약 16L	22,400원
전기온풍기	전기	약 32Kw	10,163원
석유난로	석유	약 10.4L	14,560원

펠릿 연료란?  
목재를 연료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 석유 대비 값이 싸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신재생에너지로써 가치가 높은 자원입니다.

문의 전화 **070-4111-7823**  
**010-9468-3282**

대리점·취급점·딜러  
영업사원모집 (유사업종 우대)